

01 교회소식

어린이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이재록 목사의 주니어 바이블 스터디 『7일간의 섭리』 발간과 아동 주일학교 봄방학 맞이 비전 특강 등 생기가 넘치는 교회 소식.

02 생명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4)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 계명대로 마음 중심으로 주일을 거룩히 지킬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03 기획특집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사도 바울처럼 열매 맺는 비결은 무엇일까?

04 간증

“하나님 크신 권능~”

시력이 좋아진 황금란 전도사와 성대 풀림을 치료받은 김호재 형제, 난소 낭종이 사라진 페루 파니 자넷 성도의 간증.

만민뉴스

제777호 2017년 2월 26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신비로운 창조 역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재록 목사 주니어 바이블 스터디 『7일간의 섭리』 발간



‘어떻게 말씀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을까?’, ‘최초의 지구는 마그마 바다였을까?’, ‘햇빛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식물이 왜 해보다 먼저 창조되었지?’, ‘공룡은 왜 사라졌을까?’

2월 24일, 신비롭고 놀라운 창조의 비밀과 하나님의 사랑을 재미있게 풀어가는 이재록 목사 주

니어 바이블 스터디 다섯 번째 『7일간의 섭리』가 발간되었다.

무수한 금식과 깊은 기도를 통해 풀이 받은 이재록 목사의 창세기 강해를 토대로 한 이 교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친히 지구에 내려오셔서 베푸신 7일간의 섭리를 담고 있다.

오랜 세월 정성스럽게 지구의 기초를 다지신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창조의 사역을 이루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기까지의 섭리가 총 10과에 걸쳐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수록되어 보다 쉽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다.

또한 각 과마다 ‘창조의 신비’ 섹션을 통해 인체와 동식물, 자

연에 깃든 신비롭고 놀라운 창조의 증거들이 소개된다.

‘60조 개 이상의 세포’, ‘태양을 이용하는 개미’, ‘자기 보호 기능을 가진 식물’ 등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 아이들이 놀라운 창조의 진실에 대해 스스로 궁구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한다.

이 외에도 아동을 위한 바이블

스터디 교재는 『선』과 『공부 잘하는 비결』, 『하늘 문이 열리는 파워기도』, 『출발! 아름다운 천국여행』 등 10여 권이 있다.

이재록 목사 주니어 바이블 스터디 교재는 초등학교 학생뿐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중·고등학생이나 청년, 장년 등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것이다.

아동주일학교 ‘2017년 봄방학 맞이 비전특강’ 열려

지난 2월 20~21일 이틀간 아동주일학교에서는 ‘2017 봄방학 맞이 비전특강’을 진행하였다. 만민의 꿈나무들이 방학을 활용하여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여 꿈을 키우고 성경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어 영육 간에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와~ 성경이 읽어져요!’라는 주제로 첫째 날 오전에는 교감 장성식 목사를 강사로 성경의 기초 지식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 공부하였다. 둘째 날 오전에는 교장 조민경 전도사를 강사로 성경 인물들의 신앙에 대해 배우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과 ‘하



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강의가 진행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웠다.

첫째 날과 둘째 날 오후에는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나눠 각각 김영만 집사를 강사로 피자, 까나페 요리를 배워보는 ‘즐거운 요리’ 시간과 과학지도사 김중훈 집사를 강사로 광섬유를 이용한 빛 분수를 만들어 보는 ‘창조 과학’ 시간을 가졌다.

2016년 각 부문 우수상 시상

2월 26일 주일 저녁예배 시 ‘2016년 각 부문 우수상 시상식’이 본당에서 열렸다. 수상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교세 부흥을 이루었거나 각 분야에서 공적을 인정받은 일꾼들이다.

이날은 총 24명이 교구의 우수 조장과 우수 구역장, 선교회의 우수 조장과 우수 기관장, 우수 교사, 위원회, 봉사대, 상근 직원, 봉사자 부문 대표자로 수상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
 (출애굽기 20:8~1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4)

며,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 다음 날에 장사하려고 성 밖에서 자는 이방인들까지 근접하지 못하게 쫓아내지요. 안식일을 범할 만한 요소를 멀리하여 아예 미혹받지 않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 후에야 하나님께 담대히 축복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신자에게 “주 일에는 아무것도 사지 말고 가게도 무조건 닫아야지 안 그러면 재앙이 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갓난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여 탈이 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마음에 짐이 되어 오히려 교회를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신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나 다름없기에 당장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믿음의 분량대로 섬세히 이끌어가십니다. 스스로 안식일을 기쁘게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체험과 깨우침을 주시며 인도하시지요. 안식일의 의미와 거룩히 지킬 때 임하는 축복 등 강증을 들려주며 믿음을 심어주고 기도해 주면 결국 스스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도 알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 욕심과 편리함을 좇아 여전히 주 일에도 매매한다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지켜야 할 십계명 중 하나를 지켜 행하지 않으니 영계의 공의에 의해 하나님께서도 지켜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2. 매매가 허용되는 특별한 경우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 비난합니다. 당시 규례에 의하면 이삭을 자르거나 비비는 것 모두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알고 그에 맞게 지키는 것이 마음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컨대 교회에서 성도들이 총만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서점이나 매점, 자판기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 선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서점에서는 성경이나 찬송, 설교 테이프 등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며 영적인 생명을 주는 것을 판매합니다. 교회 안의 매점이나 자판기는 어린이들이나 초신자들이 세상에 나가 매매하지 않도록 비치한 것이지요.

물론 안식일 전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간혹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어린 새신자가 식사 후 음료나 커피를 마실 수 없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회 내 편의시설을 두고 수익금은 구제와 선교 등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3. 결혼이나 돌잔치가 있는 경우

만일 주일에 가족이나 친척, 직장 상사나 동료의 결혼을 하거나 돌잔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일에 잔치하는 사람이라면 대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일 것입니다. 또 세상 잔치는 대개 먹고 마시고 즐기 위해 모이는 자리이지요. 그러니 믿음 있는 분이라면 거룩한 주일에 세상 모임에 함께할 마음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석할 수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사전에 미리 축하해 주며 진심을 전달한다면 오해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하게 행동했다면 핍박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린 새신자나 초신자는 이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주일에 친척 결혼식에 안 가서 핍박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면 예식에 참석하는 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반드시 드리고 가야 하며, 예식 후 잔치 자리에는 가지 않아야 합니다. 주일에 잔치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세상 모임에 함께하는 것은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신자는 믿음이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식에만 참석한다 해도 믿음이 여린 상태에서 자주 가다보면 마음이 풀어져 주일을 범하게 될 수 있기에 가능한 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분들도 영혼을 위해 간혹 세상 잔치에 가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초신자가 주일에 결혼하면서 담당 주의 종과 일꾼들을 초청했을 때 가지 않는다면 영혼이 실족할 수 있지요. 이러한 경우 영혼을 위해 가는 것이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으로 기도해 하나님께 맡기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참석해야 한다면 예배를 드린 후 영혼을 위해 참석하는 것은 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1~1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의 뜻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는 자신이 생명을 얻는 길을 택하며, 더 나아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길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심으로 이 땅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장차 영원한 쉼이 있는 천국 중 가장 안락하고 행복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이 되어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과 기도, 사랑의 교제를 통해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면, 영혼이 새로워지고 몸도 마음도 새로워져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주일에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물질 욕심으로 주일에 장사를 하거나 먹고 마시고 즐기 위해, 또는 편의를 위해 사고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는 당시 유다 총독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매매를 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유다 사람이 안식일에 일하고 매매하는 것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면서 꾸짖습니다.

또한 백성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안식일 전에 성문을 닫아 매매하는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케 하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비결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지상 명령이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부탁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다(마 28:18~20).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고백했다(고전 9:16).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전도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하나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날마다 기도하느라 힘겨운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자 하루에 제자의 수가 삼천 명이나 더했고,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를 일으키니 그가 걷고 뛰었다. 또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조차 반박하지 못할 만큼 유창하고 권세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고, 자신이 주님과 함께하며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전했다.

사실 베드로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기 전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어린 계집 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다. 하지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 살아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담대히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된 것이다.

전도는 십자가의 도와 천국 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어둠의 세력에 빼앗긴 하나님 자녀를 찾아오는 영적인 싸움이다. 따라서 성령을 받고 불같은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무수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성격이라 전도를 못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불붙는 심정이 되어 전도에 힘써야 하겠다.

둘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전도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매순간 마음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과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될까, 안 될까? 이 말을 전하면 믿을까, 안 믿을까?’ 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담대히 입을 열어 예수가 구세주 되심과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해야 한다. 또한 각각의 상황에 맞도록 성령의 역사 속에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질병 치료의 간증을 해 주어야 한다. 또 어떤 경우는 물질의 축복을 간증해 줄 때 마음의 문을 쉽게 열 수 있다.

이처럼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성령의 인도와 주관 속에서 전할 때야 신속히 마음 문이 열리고 영적인 믿음과 생명이 심어져 전도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딤후 4:5).

셋

범사에 본이 되는 삶

디도서 2장 7-8절을 보면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교훈하셨으니 성도들은 스스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며 원수 마귀가 송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전도를 많이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 자신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을 볼 수 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웃 사랑에 본을 보여 남의 어려움을 볼 때 자기 일처럼 힘껏 돕는다. 더욱이 겸손하여 모든 사람을 먼저 섬기기 원하고 상대의 유익을 구한다. 이렇게 범사에 덕과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전도할 때 상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또한 전도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본받아 자신도 점차 진리를 알고 믿음이 성장하여 알곡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치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며 성장하듯이,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도 대부분 자신을 전도한 사람의 신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범사에 본이 되는 삶이 중요한 것이다.

넷

생명을 불살라 충성하는 열심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혹독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지만 그 마음에 영혼 구원의 열정이 결코 식지 않았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처참히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고 애타게 말씀하시며 지금도 영혼들을 위해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을 당했고, 어떤 이들은 결박과 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으며, 어떤 이들은 돌에 맞거나 굶주려야 했다. 칼에 목베임과 톱으로 켜는 일을 당해야 했고, 맹수의 밥이 되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불에 타서 순교하는 등 생명을 잃은 성도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물질과 시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 주신다.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여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1~2)

3

March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7.2.26~3.4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나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
- 일곱교회 19-24 ■ 날마다 새롭게
- 창세기 강해 110 ■ 십계명 2-5
- 요한일서 강해 3-8 ■ 축복 3-7
- 요한계시록 강해 4-10
- 마음발을 개간하자 2-6

GCN TV설교

-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1 (이수진 목사)
-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들 (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37 (이희선 목사)
- 율기 강해 20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19 (정구영 목사)
- 위로부터 난 지혜 9 (김수정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세혜보기) 16
- 권능 스페셜 5 ■ 마지막 때 8
- 창조와 과학 17 ■ English 14
- 일곱달콤 어여쁜 울동 71
- 내 마음의 찬양 28
- 모두 드려요 49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4
- 인도 연합대성회 1
- 믿음으로 걸어온 길 36

GCN TV 채널

ktolleh tv 882번

“하나님 권능으로 시력이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황금란 전도사 (54세, 중국교구 교구장)



저는 201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하면서 좌우시력이 0.5/0.3으로 이전보다 더 나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눈에 난시가 심해 안경을 착용해도 시력을 깨끗하게 교정할 수 없다 하여 '다초점 안경'을 권유해 착용해 보았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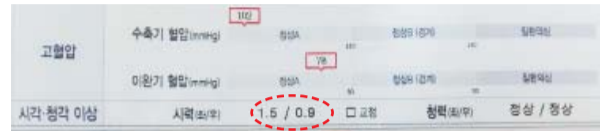
제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물이 뿌옇고 두세 개로 보여 안경을 쓴 것이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

다. 예배 중에도 안경을 벗으면 화면의 자막글씨가 전혀 보이지 않아 자막은 아예 볼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저는 예배 시 환자기도를 받을 때마다 시력회복을 위해 기도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과 하나님께서 '눈'에 관련된 질병들을 많이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신 만민 하계수련회를 통해 꼭 응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2016년 8월 8일 하계수련회 첫날 교육 후 은사 집회 때 시력 호전을 마음에 품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뒤 시간이 지날수록 사물이 점점 깨끗하게 보이며 시력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방문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좌우시력 검사 결과 1.5/0.9로 눈이 확연히 좋아진 것입니다. 너무 신기해 또 다시 검사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수련회 이후 자연스럽게 안경을 쓰지 않았고 작은 모니터의 자막까지도 잘 볼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 지난해 11월 15일 건강검진 결과, 0.5/0.3이었던 좌우시력이 1.5/0.9로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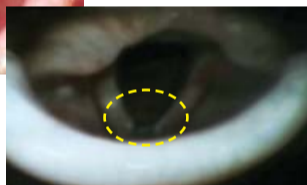
“성대 폴립을 치료받아 이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김호재 형제 (27세, 3청년선교회)

2013년 10월, 대학 입시 준비로 무리하게 노래 연습을 해서인지 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성대 결절이 왔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입시를 앞두고 연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약간의 쉰 목소리 외에는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초, 저는 대학 입학의 목표는 이뤘지만 목 상태가 좋지 않아 결국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말부터 성대 결절이 심해져 갑자기 목소리조차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016년 6월에는 머리로 생각한 단어를 말할 수 없을 만큼 성대 결절이 심각해져 대인기피증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 성대를 과하게 사용하여 우측 성대에 폴립이 생김.



▲ 우측 성대에 생긴 폴립이 기도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짐.

성대전문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성대에 '혹'이 생겨 폴립화 된 상태였지요. 의사선생님은 수술하지 않고는 치료를 장담할 수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꿈이 있었기에 온갖 질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제

목도 능히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민기 도원 환자집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으며 회개와 기도로 정성껏 하계

수련회를 준비하였지요. 2016년 8월 초에 열린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첫날 교육 후 은사집회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행복하게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마친 2주일 뒤였습니다.

목 안에 물이 찬 느낌이 들어 화장실로 급히 뛰어가서 뱉어보니 피였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의사선생님은 “폴립이 스스로 터지기는 쉽지 않은데...” 하면서 운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혹이 깜짝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소 낭종을 치료받아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어요!” 파니 자넷 다빌라 비야누에바 성도 (39세, 페루만민교회)



저는 2013년 초, 수개월 지속되는 몸에 이상 증세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난소 낭종이었지요. 고민하던 중 지인의 전도를 받아 페루만민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많은 성도가 하나님 권능으로 치료받는 것을 보며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지요. 그래서 2014년 4월, 서울 만민중앙교회의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

건(행 19:11~12)으로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 질 분비물과 좌우 난소가 모두 정상이며 자궁 근층이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나팔관 내 감염이 사라졌다는 결과가 나왔지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비쁜 일상과 가정의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느끼며 스트레스가 가중되다 보니 병이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힘들어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지요.

2015년 7월, 페루만민교회 창립 9주년을 맞아 손수건 집회가 열렸습니다. 감사 이희선 목사님(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이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실 때 저는 말할 수 없는 희열과 함께 치료의 확신을 얻었지요. 이후 난소 낭종이 완전히 치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2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청원시 성안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시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